

산업용 로봇이 2007년 기준 대당 5,000만원이던 것이 2014년 현재 대당 2,000만원으로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여 경비절감을 통한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이 단순노동자 뿐만 아니라 숙련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은 전문직 종사자(의사, 회계사, 변호사)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측과 분석 업무를 인간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BM의 왓슨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전문직 종사자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으로 머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아는 대로 구술하라.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 -> 인정 -> 인공지능 -> 좋다 ->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인공지능 적용하더라도 감성이 존재 없음.

-> 변호사의 경우 인공지능이 잘못하여 재판을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또는 무죄인데 유죄일 경우 이것이 후에 알려질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 의사로 되었을때 잠재적인 질병이나, 선천적인 질병을 판단하지 못하여 처방을 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오랜경험바탕과 감성에서 나올수 있는부분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만든사람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감성과 타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 종사자 들보다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전문분야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 되므로 보완수단에 머무를 것으로 주장한다.

알파고와 왓슨으로 인공지능의 세계적으로 관심이가졌습니다. 현재는 챗봇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별도의 상담사없이 고객은 상품을 주문하거나 예약할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많은 전문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로봇이 나와 전문직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한계가 있다.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해야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예기치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로봇이 변호사가 되었을경우 잘못판단하여 이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었을때 후에 알게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질것이나 이다.